

외국인 주민센터·특화거리...이주민이 행복한 영암 만들기

불편 해소정책 발굴...커뮤니케이터 랩 운영·생활가이드북 제작 등 소외감 해소를 사회적 통합 실현...행안부 우수 과제 1차 심사 통과

영암군이 이주민 불편 해소정책 발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영암군은 이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을 발굴 지원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과 함께 '이주민(이주민)이 이주민(이주민)되다'를 슬로건으로 운영하는 등 이주민들의 삶 개선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서비스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주민(이주민)이 이주민(이주민)되다'는 전남 지역 22개 시·

군 중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영암에서, 지역의 큰 일꾼으로 활약하는 이주민의 소외감 해소 등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해 기획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이주민과 영암군을 잇는 가교 역할의 정보체계인 '이주민 커뮤니케이터 랩 운영', 이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각 나라별 언어로 안내받을 수 있는 '이주생활가이드북 제작' 등이다.

군은 이번 사례를 행정안전부의 우수과제로 제출해 전남에서 유일하게 1차 심사를 통과하고 2차

대면심사와 온라인 투표가 진행 중이며, 소통 24 홈페이지의 '국민심사 페이지(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대국민 온라인 심사)'에서 오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영암군은 이주민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외국인특화거리 조성, 워드 무비데이, 세계인의 날 운영, 커뮤니케이터(문화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주민들의 삶 개선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주민의 소외감 해소 등 사회적 통합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암군이 개최한 '이주민과 함께하는 워드 네팔 무비데이'에서 참석자들이 하트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해남 절임배추 명성 지킨다”...원산지 표시 단속

700개소 이달까지 배추·소금 등 적발시 내년 보조사업 지원 제외

해남군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말까지 관내 절임배추 생산시설 700개소를 대상으로 배추, 소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명품 해남절임배추'의 명성을 지키고 불량 절임배추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산물 명명검시원 합동으로 추진하며, 타 지역 배추를 해남산으로,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등 원산지 표시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또 절임배추 생산업체 대상 원료 관리, 위생 관리, 작업환경 관리, 작업자 관리 등 절임배추 생산자에 대한 위생 관리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 후 내년도 절임배추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군은 앞서 지난달 30일 농관원, 읍면 절임배추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절임배추 부정유통 근절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해남 절임배추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생산자가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절임배추 생산에 노력하고, 11월 중순 이후 해남배추로 김장하기 캠페인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미남축제’ 24만명 문전성시

농수특산물·먹거리 선보여...대표 특산물 고구마 주제관 호평

지난 1일부터 3일간 열린 '2024 해남미남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해남미남축제는 첫날 많은 비가 오면서 개막식 읍면 퍼레이드가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연인들 24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남미남축제는 전국 최대 농어업인인 해남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먹거리를 선보이는 행사다. 올해는 해남 대표 특산물인 고구마의 생육과정과 품종별 고구마, 희귀한 고구마꽃 등을

전시한 고구마 주제관이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또 해남 먹거리의 원류를 찾아가는 미남스토리관에서는 올해 전통장을 주제로, 해남 14개 읍면 전통장과 100선 음식을 선보이고, 해남의 요리명인들과 함께하는 전통장 요리 시연 및 체험행사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지역 외식업체들이 참여한 미남 푸드관과 해남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주전부리도 선보여 관람객들의 입을 즐겁게 했다.

특히 해남 515개 마을에서 재배한 배추를 이용

한 '515 해남미남김치 비빔'과 해남쌀과 김으로 만든 '2024 떡국 나눔'도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배추값 폭등으로 김장 담그기 체험행사와 김치 판매 부스가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아간에 진행된 개막축하쇼와 남관콘서트, 1일 개최된 베트남 문화공연 등에도 관람객이 몰려 깊어가는 두툼산의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축제장 인근은 2만8000여점 국화로 장식한 땅콩꽃축제가 함께 펼쳐져 인기를 끌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땅끝 해남의 풍요로운 계절을 담은 해남미남축제가 많은 관광객이 찾은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축제로 마무리됐다"며 "내년에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더욱 건강한 해남의 맛과 멋을 전하는 축제를 준비해 다시 만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제1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의회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영광군의회 제공>

지방의원이 된 청소년들

영광군의회 '의회교실'...3분 자유발언·안건 처리 등 체험

영광군의회가 최근 영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한 '제1회 청소년 의회교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방의원의 역할과 의회의 회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입교식, 개회식, 본회의, ox 퀴즈교실,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3분 자유발언과 안건 처리 등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영광군의회에 실제 본회의와 유사한 형태의 회의를 체험했다.

이런 성과대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임산부·영유아 영양사업의 대상자 발굴과 운영·관리, 영양교육·상담, 보충 식품 공급·관리, 지역자원 활용·연계 등 영양플러스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우수사례를 평가한 후 전국에서

12개 보건소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진도군은 지역 자원의 활용과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관련 사례 회의를 통한 맞춤형 지원, 다문화가정 등의 자원에 집중된 '행복한 보배섬 임마모임'과 '금쪽아가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진도군, 통합건강증진 복지부장관 표창

생애초기 건강 관리·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호평

목포시 도시재창조 '지역특화 대상'

균형발전 우수사례 대회...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 재생 성과

목포시가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에서 균형발전 우수사례 지역특화분야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한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은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자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시는 이번 한마당 행사에서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함께 '목포 근대문화투어리즘 1897 개항문화거리'라는 주제로 만호동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현재 시는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이하 보리마당사업)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후 원도심 지역자산 활용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도시재창조 한마당에 소개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목포의 옛 위상을 가능케할 수 있는 목포진과 개항 이후 근대도시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만호동 일원 29만㎡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시는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자산 등을 활용한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등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무안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이달 개소

여가부 공모사업 선정 우수탁 협약 체결...돌봄 품앗이 등 지원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가족센터와 '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우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회맹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사업인 '신한 꿈도담터' 공모사업에 지난해 9월 선정돼 공간 리모델링과 기자재 지원을 받았다.

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무안군 복합문화센터 1층에서 11월 중 개소 예정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장소 제공과 소통 및 육아 정보를 나누고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에 첫 공동육아나눔터가 문을 열게 되어 기쁘며,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를 구축하여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무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무안군수실에서 진행된 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우수탁 협약식. <무안군 제공>

신안천일염, 서울 소비자와 소통

여의도서 소금박람회...제품 소개·체험 등 3일간 21만명 방문



신안군이 '2024 소금박람회'를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했다. 행사장 모습.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올해로 16회를 맞는 '2024 소금박람회'를 21만 명의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천일염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는 김장철을 맞아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천일염 생산단체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 판로개척을 위한 판촉행사와 다양한 천일염 제품들 소개로 구매 호기심을 높이고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박람회는 주제존, 힐링·체험존, 오락존의 3가지 테마존으로 구성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소금사우나와 족욕체험 등 소비자가 직접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건강 힐링 프로그램 제공했다.

특히, 스탬프투어와 어린이 놀이터, 포토존 등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목을 받았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신안천일염을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